

고범석의 코트라 및 무역협회 경제논술 제5판 소지회원을 위한 제6판 추록

경제논술5판을 소지하고 계신 회원님의 경우 본 추록을 참고하여 6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통상직	5	〇〇명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해외투자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조사, 외국인투자 유치, 내부 경영관리 업무 (해외순환근무 필수)

※ 담당업무 세부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클릭](#))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외국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 850점(또는 TEPS 700점, TOEFL-IBT 98점) 및 TOEIC Speaking 160점(또는 OPIc IH) 이상 득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또는 TEPS, TOEFL-IBT) 및 TOEIC Speaking(또는 OPIc) 점수 모두 보유해야 지원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TOEIC 700점(TEPS 555점, TOEFL-IBT 79점)이상 득점자 - 2015.3.1.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조회불가 성적,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조회 불가시 불합격처리)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방인재 우대
-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우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원서접수일 기준 5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와 장애인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시행) 가점 부여
- 1~2등급 취득 시 필기시험의 0.5%~1% 범위 이내

3. 전형일정 및 방법

□ 전형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예비소 집)	1차 필기시험	1차 합격자발 표	2차 인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평가및 신체검사	3차 면 접	최종 합격자 발표
1.11~1. 25 (2.3~2.5)	2.18 (고려대학 교)	3월 초	3월중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추후공고)		4월 초

※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OTRA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1(수) 09:00 ~ 1.25(수) 17:00 (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채용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은 사본을 제출(원본은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원서접수 후 접수결과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예비소집

- 소집기간 : 2017.2.3(금) ~ 2.5(일) 10:00~17:00 (시간엄수)
- 소집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일자에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 * 확정소집일 및 장소 : KOTRA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예정
- 수험표 확인 : 예비소집일 지원자 본인 신분 확인
- * 지원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접수증 지참

□ 1차 필기시험 (필수 2과목 및 선택 1과목)

필수과목 (2과목/전계열공통)		- 영어 (제출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경제 논술
선택과목 (택 1)	인문계열	직무역량평가
	이공계열	직무역량평가
	어문계열	쓰기 능력 평가 (중어,서어,포어,아랍어,노어,불어,독어,일어 중 택1)

* 선택과목은 아래 선택과목 지원가능 계열표를 참조해 인문·이공·어문계열(제2외국어 1개를 선택) 중 하나를 선택

* 선택계열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응시원서 제출전 확인 요망)

<선택과목 지원가능 계열>

구분	지원가능 계열
고졸이하	모든 계열(인문, 이공, 어문) 가능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인문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이공계열 전공자 ▶ 이공, 어문 중 택 1 어문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예체능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 복수 전공의 경우 본 전공 기준으로 지원
대학원(재학)	대학(학부) 전공 기준으로 지원
대학원(졸업)	인문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이공계열 전공자 ▶ 이공, 어문 중 택 1 어문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예체능계열 전공자 ▶ 인문, 어문 중 택 1

4.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 위변조, 부정행위자는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
-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는 요청시 별도 지정기간에 반환 예정
- 최종합격자라도 공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예비소집일 수험번호 부여 후 미응시한 경우 차년도 공채 응시 제한
-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OTRA 홈페이지등을 통해 안내
- 필기시험 이후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한국무역협회 2017년도 신입직원 모집

21세기 한국무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구분	지원 기준
일반직 (00명)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전공,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졸업자 또는 2017. 2. 28 이전 졸업예정자 ▶ 어학성적(영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가 아래 점수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IC 850(TEPS 700, IBT 100) 이상인 자 - JPT 800점(JLPT N1) 이상 - 신HSK 5급 210점 이상 ※ 최근(2016.10.13 기준) 2년 이내 국내에서 실시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국외성적은 조회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군필자/면제자)
연구직 (0명)		
정보통신직 (0명)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에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구직의 경우, 상경계열 석사 이상 학위자, 협회주관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대상 수상자, 연구분야 경력자 우대 ▶ 정보통신직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정보보안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 정보통신분야 경력자 우대

※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확인시 최종합격 이후에도 불합격처리

- ▶ 원서접수기간 : 2016. 10. 13(목) ~ 10. 24(월) 18:00 까지
-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www.kita.net)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논술, 영어) ⇒ 1, 2차 면접
- ▶ 채용방식 : 예비직원과정(약 3개월)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되며 성과연봉제 적용
- ▶ 문의 : 한국무역협회 인사총무실(02-6000-5075) personnel@kita.net

입사지원 바로가기

채용담당자의 입사지원 tip



128페이지

2016년 하반기

1.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가 문제시 되고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논하고 대응정책을 3가지 이상 쓰시오. 또한 국가간 외부효과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논하시오.

(50점)

2.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수입품 쿼터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쿼터제 실시로 인한 중국 경제효과를 각 경제주체의 후생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관세부과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쓰시오.

(50점)

131페이지

2016년 (11월)

2문제 중 택 1

1. 한국의 총수요감소에 대해 정부의 총수요증가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효과가 큰 정책과 작은 정책을 설명하시오.

2. 곡물의 가격동조화 원인을 서술하고 높은 가격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쓰시오.

133페이지

2016년 하반기

문제 1. 이케아의 성공적 한국진출과 한국 가구시장 기사

(1) 한국 가구시장을 분석하시오. (20점)

(2) 현지화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20점)

문제 2.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진출과 사회적 책임(ISO 표준화) 관련기사 (중국스마트폰시장)

(1) 해외시장 진출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시오. (40점)

(2) 해외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장단점을 쓰시오. (40점)

주제 5. 트럼프노믹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 트럼프의 경제정책인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 미국은 2017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유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30점)
3. 트럼프는 내수확대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30점)
4. 미국은 자국경제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0점)

<개요 작성>

1. 트럼프 노믹스

(1)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

- ①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트럼프는 교통 체증과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미국인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낙후된 도로, 공항, 수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
-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1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시 1만 3천개 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된다는 보고서 발표
- ②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임기 동안 1조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했다.
- ③ 이너 시티(낙후된 도심 지역)를 재개발하고 고속도로와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을 새로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④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치가 50조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⑤ 인프라 갭(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예산과 실제 확보 예산)이 확대될 경우, 2025년까지 GDP의 4조 달러, 기업 매출의 7조 달러 손실과 약 250만개 일 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 통상정책

- 1) <FTA&TPP> 기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
- 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협상 실시를 제안했다. 지난 4.27에 있었던 외교정책 연설에서 NAFTA를 포함한 기존에 체결했던 FTA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②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한다.

2)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과

- ①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②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중국의 불공정 지원(Subsidies) 행위 및 느슨한 환경 규제 등을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 ③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였다.
 - ④ 이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 중이다.
-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이 48.2%에 달하고 있으며, 對독일 무역 수지 적자 비중은 9.9%, 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비중은 9.2%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는 -280억 달러로 매해 증가하면서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도 약 3.7%까지 상승
- ⑤ 미국은 2016년 2월 미 의회에서 '교역촉진법'을 발효하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 실질적 보복 조치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발표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중국산 철강, 가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도 확대하고 있다.

◆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불뚝이 한국에도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대미 수출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오는 4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나라의 환율 보고서를 내는데 무역촉진법상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세 가지 요건은 ①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할 것 ②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할 것 ③ 당국이 GDP 대비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에 개입할 것 등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정리 표 현재 중국은 대미 흑자가 3561억달러로 첫 번째 요건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갑자기 지정 요건을 바꾸거나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을 들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무역법은 무역촉진법처럼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대미 무역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 법에 따라 1988년에 환율 조작국이 된 적이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덩달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고 세 번째 요건만 미충족 상태가 돼 가까스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1년간 해당 국가와 무역 회담을 진행하면서 개선을 권고한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달 시장 참여를 막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지정국의 거시 경제정책과 환율 정책을 감시하게 한다.

3) 일본과 한국

일본,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반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통상

을 포함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한다.

(3) 에너지 정책

- ① 전통 화석 에너지 산업 강화로 미국 에너지 자립도 확대될 것이다.
- ②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 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 ③ 셰일 가스의 경우 멕시코만 중심의 셰일가스 시추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 ④ 재생에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언급했지만,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한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⑤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줄이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은 모두 무효화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파리 기후 변화협약을 무효화할 것이다.
- ⑥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면서 미국의 전통 에너지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⑦ 트럼프는 화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30년 동안 연간 7000억달러 경제성장 효과와 40년 동안 6조달러의 누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1) 세제개편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세율 인하, 상속세 등 주요 세금 폐지,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 감세 정책 중심 ·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은 39.6%에서 33%로 인하, 법인세율 역시 35%에서 15%로 인하 할 것이다.

2) 금융산업 정책

- 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폐지를 주장한다.

◆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Law)

도드-프랭크법이란 오바마 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 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5)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과 외국인투자금유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수 효과 > (단위 : 일자리 수, %)

구 분	2000~2003 연간 평균	2015	증감율
신규 리쇼어링과 외국인투자	~12,000*	67,000**	+ 400%
신규 오프쇼어링	~240,000*	60,000*	- 75%
순 일자리 증감	~-220,000	~+0	-

자료 : Reshoring Initiative.

주 : * 는 추정치, **는 Reshoring Library through Dec 31, 2015에서 계산.

(6) 고용과 노동

- ① 1,100만 명의 불법이민자 추방으로 미국 저임금 노동력을 취한 일자리를 되찾고, 불법노동 퇴치로 미국의 임금 수준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 ② 하이테크·IT 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 직군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상향 조정하고 취업비자를 엄격히 관리하여 신입레벨(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③ 트럼프의 불법이민 방지 대책은 멕시코 접경지역에 거대장벽 건설,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 이민 세관국 산하 불법이민 추방 태스크포스 설치, 비자법 강화 등이며 합법 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7) 보건 및 의료

- ①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통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보장한다(자유로운 해외약품 구매 허용).
- ② 오바마 케어 폐지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8)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

- ①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직후, 트럼프의 주요 공약(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되며 주요 아시아권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 ② 국내 KOSPI 지수는 2016년 11월 9일 전일대비 2.5% 하락, 원화 가치는 1.1% 하락했다. -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결정 당시보다 변동성은 낮았음
- ③ 트럼프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2) 인프라 투자 확대에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증가 기대

- ①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 ②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③ 한국의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및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對미국 수출 증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둘 것으로 예상된다.
- ##### 3)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직간접 수출이 둔화로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 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주장한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 될 경우, 미-중간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②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할 경우, 한국의 對미국 직접 수출 및 중국을 통한 對미국 간접 수출 모두 둔화될 것이다.
 - ③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 강화를 통한 자국의 수출 개선을 목표이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보다는 약세를 원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미국의 금리인상 이유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1) 배경

美연방준비제도(이하 美 연준)가 2016년 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연 0.50~0.75%). 한편 국내 기준금리는 2016년 6월에 1.25%로 하향 조정된 이후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50%p까지 축소되었다.

(2) 원인

- ① 3분기 성장률이 3.2% 높아지고(2년만에 최고치) 실업률이 4.6%로 떨어지는 등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 ②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FRB의 이번 기준금리 0.25% 인상이 최종적으로는 2%대 인플레이션 시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3)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①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른 국가들 또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금리인상을 불러 올 것이다.
- ② 각 나라들의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은 자국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GDP에서 수출집약도가 높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 ③ 멕시코 중앙은행의 경우는 미국 측 행보로 폐소화가 하락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했고,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 ④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강세는 반대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본유출을 가져오게 되며,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무라'에서 제시하였던 2017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그레이트완'으로 제시하였던 것 중 하나인 중국의 변동환율제 시행 가능성이 커진다.
- ④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방어하지 못하여 갑작스러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면, 오버슈팅 효과로 중국의 세계시장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영향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자본유출

- ① 외국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려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 즉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
- ② 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있었던 미국 금리 인상 당시 자본 유출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쳤던 전례가 있다. 수출 회복세 지연은 보다 현실적인 우려이다.

2) 수출타격

- ① 신흥국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불어난 엄청난 자금이 밀려들면서 호황을 누리다가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과 유가 하락으로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 ② 미국의 금리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신흥국 경제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흥국 의존도가 60%에 육박하는 한국 수출에는 치명타가 된다.
- ③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사상 최장기간 연속 감소 기록을 세웠다. 2016년 8월 2.6% 증가하면서 연속 감소 행진을 종결했지만 9월과 10월에 다시 줄었다. 이 때문에 연간 수출도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 추가하락

- 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즉 0.25% 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2016년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천34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4) 이론적 분석

(가) 외환시장의 영향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한국의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하므로 한국의 BP곡선이 상방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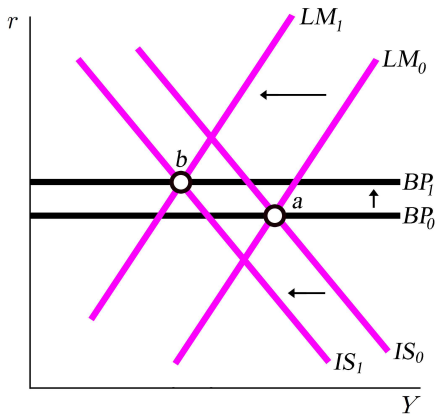
(나) 실물시장의 영향

- ①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기침체를 가져오며 이는 한국의 순수출감소로 연결되어 IS곡선이 좌측이동한다.
- ② 불확실성의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IS곡선이 좌측이동한다.
- ③ 또는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경제의 자율적 조정을 가져와 경기호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IS곡선을 우측 이동시킬 수 있다.

(다) 화폐시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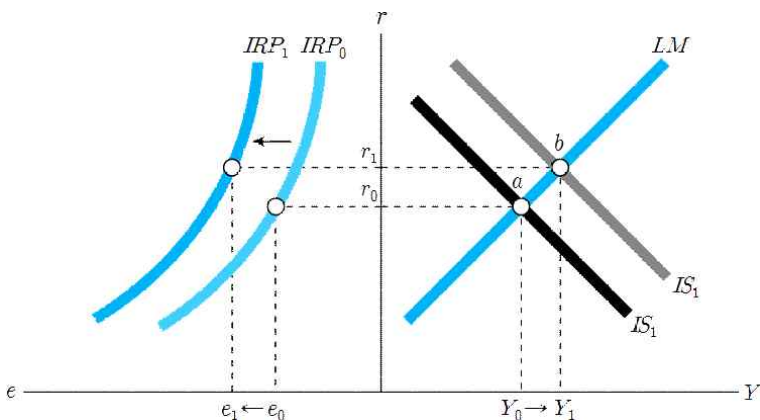
불확실성의 증가는 화폐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는 통화승수를 감소시키므로 통화량 감소로 LM곡선이 좌측이동한다.

(라) 모형분석



- ① 미국 금리인상 이전 한국의 균형은 a점이었으나 BP곡선은 상방 이동, IS곡선과 LM곡선은 좌측이동하므로 균형 점은 b가 된다.
- ②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국내금리도 상승한다.

(마) 모형분석



- ①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제금리를 상승시킨다.
- ② 이는 그림에서 IRP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동시에 IRP를 포함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 ③ 따라서 새로운 균형에서 총소득은 증가, 이자율은 상승, 원-달러환율은 상승한다.

(5) 미국 금리상승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신흥국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 ②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가계 등 민간부채,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 질적구조 개선 및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 ③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수단을 마련하여 외환시장 급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피해를 대비해야 하며, 정부는 외환건전성 강화와 함께 기업이 직면한 수출감소 및 수출대금 미회수 등 애로 상황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
- ④ 한·중 FTA를 활용해(비관세장벽 애로 해소와 원산지 간편 인증제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함께 구조개선,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3. 트럼프는 내수확대를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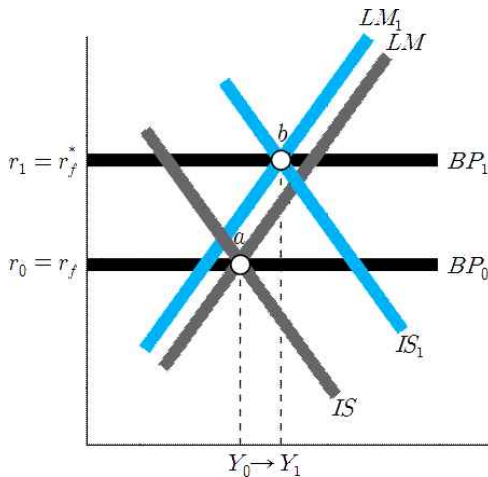
(1) 가정

- ①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대국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소국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 ② 양국은 모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이동은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2) 미국의 재정정책의 효과

- ①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또는 감세정책은 재화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 ② 이러한 수요증가는 일부 미국의 산출량증가로 이어지며 일부는 미국과 세계의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③ 또 미국의 이자율상승은 미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달러의 강세(환율의 상승)를 유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3) 미국의 재정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



- ① 세계이자율 r_f 의 상승은 BP 곡선을 상방이동시킨다.
- ② 이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미국의 소득증대, 달러화 강세 등과 함께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③ 이러한 총수요 증가효과의 일부는 산출량과 고용을 증가시키며 일부는 물가를 상승시킨다. 물가의 상승은 실질 잔고의 감소를 통해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실질 환율 하락과 순수출 감소를 통해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총수요 증가의 효과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

(4) 결론

미국의 재정적자는 우리나라의 총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이자율상승, 물가상승, 환율은 상승 및 경상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4. 미국은 자국경제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1) 리쇼어링

1) 개념

- ①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라 한다. ② 과거 선진국에서는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오프쇼어링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반대 현상인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이 늘고 있다.

2) 리쇼어링 증가원인

(가) 신흥국의 임금 상승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해 비용절감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나)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선진국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2) 현황

- ① 미국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통해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으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다.
- ② 일본 또한 엔화 약세와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 ③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 자리 잡은 자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원산지 표기 의무제를 추진, 2014년 결국 유럽연합(EU)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 이탈리아는 패션업체 베네통을 비롯해 액세서리 업체 홀라, 고급 패션업체 보테가 베네타, 아지무트 등이 체코·루마니아·중국·베트남 등지의 생산공장을 이탈리아로 옮김
- ④ 아디다스는 해외 생산 공장을 2016년 독일 국내로 옮겼다. 생산공정이 전문화되며 대규모 인력 고용이 불필요해졌고, 공장을 운영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잘 갖춰진 본국 환경이 개발도상국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 ⑤ 프랑스도 정부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자국 생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한국(투자국)의 경제적 효과

1) 일자리 감소

- ①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제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고용 기회 손실 규모를 추산해 보면 2000년 이후 12년동안 약 66만개에 달함
- ② 외국의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국 상품의 수입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국의 고용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 ③ 즉, 투자유치국이 대국이라면 수입증가가 투자국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견인효과'를 발생시키고 투자국의 소득증가로 유발된 수입은 다시 투자유치국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반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국제수지 측면

- ① 투자국은 자본유출로 자본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 ② 투자유치국의 자회사가 자국으로부터 자본재 등을 수입하거나 투자국에 배당금, 이자, 특허사용료 등을 지불하게 되면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3) 제조업 공동화

- ① 제조업 공동화란 산업의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 생산여건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이는 제조업의 국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부품소재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16년 상반기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 17.1%

4) 성장잠재력 약화

투자 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높여주며,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떨어졌음을 시사

주제 6. 환율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며 중국 일본에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유로화 평가절하를 거론하며 독일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붙였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 비난이 있었고, 지난 대선공약에서도 환율 문제가 거론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글로벌 환율전쟁이 본격 시동된 걸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1. 환율전쟁 또는 통화전쟁의 발생원인과 미국의 이러한 비판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시오. (20점)
2.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어떻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는지 예상해보고 이 방안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쓰시오. (40점)
3. 환율전쟁은 ‘제로섬 게임’이고 ‘인근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해 설>

1. 환율전쟁 또는 통화전쟁의 발생원인과 미국의 이러한 비판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시오.

(1) 통화전쟁 또는 환율전쟁이란?

- ① 각국은 자국의 유리한 환율설정을 위하여 서로 정치적 압력을 넣어가면서 까지 상대국의 통화가치정책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통화문제를 둘러싼 과격한 외교적 행동을 통화전쟁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 ②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1차 환율전쟁,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닉슨 쇼크로 촉발된 2차 환율전쟁,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4차 환율전쟁 등이 있다.

◆ 플라자 협정

미국은 자금시장의 경색과 함께 촉발한 금융위기로 1985년 9월 21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가 상호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 협정’을 열게 된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 비밀회담에서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협조 당부하여 엔화 및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엔화가치가 40% 이상 상승하므로 대외수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2) 환율전쟁의 발생원인

1) 달러약세

미국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달러 약세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은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 쌍둥이적자 (Twin Deficits)

미국 대통령 레이건 정권의 경제정책 결과로 발생한 경제 현상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경우 ‘무역적자’가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합해 ‘쌍둥이 적자’라고 부른다. 쌍둥이 적자는 보통 민간부문의 지출 증대를 제약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 유동성 과잉 또는 양적완화

- ① 2008년에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가 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했다.
- ② 과잉 유동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각국이 다시금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를 실시하고 있다.
- ③ 다른 국가들이 유동성을 흡수할 때 자기만 유동성을 확대하면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경기침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3) 미국과 대미 경상수지 흑자국 간의 화폐가치 평가절상 논쟁

저평가된 대미 경상수지 흑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미국의 목표와 방어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국의 태도가 충돌하고 있다.

4) 유동성함정

- ① 정부가 유동성을 늘려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고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 ② 현 경기에서는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기 힘들고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적자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 ③ 따라서 각국은 의도적인 평가절하 정책으로 순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3) 미국 비판의 문제점

1) 고착화된 구조

- ① 미국은 대미 경상수지 흑자국으로부터 수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소비 국가이므로 미국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 ② 즉, 미국의 경상수지 지속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

◆ 경상수지와 저축 및 투자

1. 국내총저축과 투자와의 관계

- ① $S_N - I = X - M$
- ② 국내총저축(S_N)이 투자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 국내총저축보다 투자가 크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됨을 의미한다.

2. 민간저축, 정부저축, 투자와의 관계

- ① $(S_p - I) + (T - G) = (X - M)$
- ②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는 과소비에 따른 민간저축(S_p)감소, 재정적자 (정부저축/ $T-G$ / 감소), 투자지출(I)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 미국 제조업의 취약

- ① 순수출은 가격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②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제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따라서 환율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3) 미국 기업의 오프쇼어링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수많은 교역재들이 미국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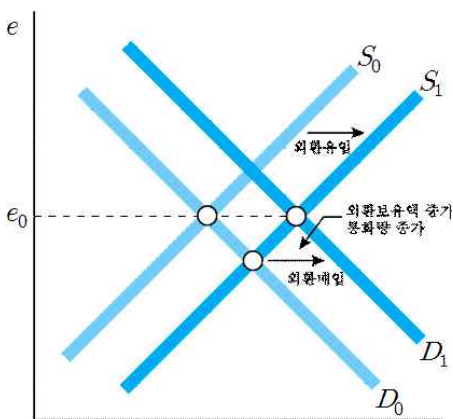
4) 트리핀의 딜레마

- ①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달러 강세가 될 수 밖에 없다.
- ② 반면 달러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을 추구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 공급 감소는 세계무역축소로 이어져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이런 현상은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의 특수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④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의 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다.

2.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어떻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는지 예상해보고 이 방안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쓰시오.

(1) 이론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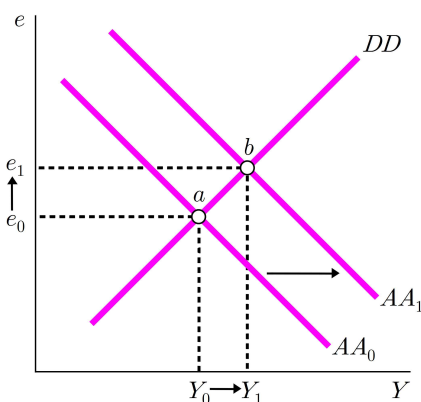
1) 외환시장 - 외환유입시



- ① 외환유입으로 외환공급곡선이 우측이동하면 ($S_0 \rightarrow S_1$) 환율이 하락한다.
- ②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서 외환을 매입하면 외환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므로 ($D_0 \rightarrow D_1$) 환율이 다시금 상승한다.
- ③ 외환매입은 외환보유액과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유발한다.
- ④ 또는 총수요확대정책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국내 물가가 올라가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외환의 초과공급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2) AA - DD 곡선

<변동환율제도>



- ① 환율을 올리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평가절하 이후 환율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자산을 매입한다.
- ②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하여 AA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 각국의 실제적 외환시장 개입방법

1) 중국

(가) 중국의 환율제도 - 관리변동환율제

- ① 관리변동환율제도란 정부가 환율을 정하는 고정환율제와 외국환 시장의 수요,공급상황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 사이에 있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 ② 중국인민은행은 매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미국 달러뿐 아니라 여러 나라 통화의 환율을 바구니(바스켓)에 담듯이 모아서 가중 평균해 위안화 환율로 고시한다(기준환율).
- ③ 어떤 식으로 가중 평균해 기준 환율을 산출하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시장환율은 기준 환율의 $\pm 2\%$ 범위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 ④ 위안화 환율변동폭은 2007년 0.3%에서 0.5%로, 5년 뒤인 2012년 1%로, 다시 2014년 3월 현재 변동폭인 2%로 확대됐다.

(나) 외환시장 개입방법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환율이 하락하여 위안화가 강세가 될 때 위안화를 시장에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화정책을 통해 환율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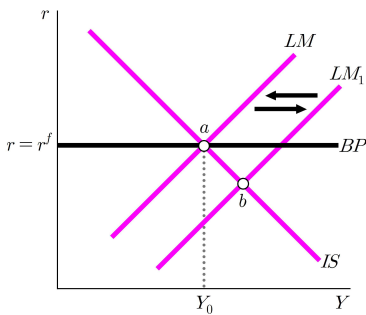
- ① 일본은 막대한 일본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엔화를 약세로 만드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 ② 그러나 엔화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브렉시트 등의 사건이 터져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 ③ 일례로 브렉시트 이후 아베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낮추었던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엔화가치가 높아져 일본 수출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엔화가치를 낮추고자 함을 알 수 있다.

3) 독일

- ①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관리하는 통화정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② 불가능한 삼위일체설에 따르면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포기하여야 한다. 즉, 독일 역시 유럽중앙은행 하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유로화의 경우는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낮은 유럽연합 국가들인 남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포함하므로 유럽의 화폐통합 이전보다 독일은 화폐가치가 낮아져서 수출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 불가능한 삼위일체설 또는 삼자택일의 딜레마

일국은 환율의 안정성(confidence),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liquidity), 통화정책의 자율성 (adjustment)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 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가운데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은 고정되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LM곡선은 우측이동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환율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 외환당국은 외환을 매각해야 하며 이는 통화량 감소를 유발하여 다시금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 ④ 따라서 자본시장이 완전개방한 가운데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은 더 이상 국내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1) 해당국에 미치는 효과

(가) 긍정적인 효과

- ① 수출재의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 ② 수입재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이 감소한다.
- ③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다.
- ④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므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나) 부정적인 효과

- ①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 ② 많은 외채를 안고 있는 경우 평가절하는 자국통화로 표시된 이자와 원금의 상환비용이 늘어나서 외채부담을 악화시킨다.
- ③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 ④ 평가절하에 따라 교역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요소가 비교역재에서 교역재 산업으로 이동하여 장기적으로 교역재 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소득이 증가하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수출업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일반소비자의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총수요의 감소로 인한 경기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 ⑤ 평가절하는 국산품을 값싸게 수출하고 외국산품을 비싸게 수입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국민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
- ⑥ 수출재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면 수출을 통한 통화량 증대보다 수입대금으로 지불한 통화량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2)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실물자산의 가격폭등

- ① 환율전쟁은 유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석유·곡물·금속류 등 다른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 ②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한국과 같이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 신흥국의 자산거품

선진국이 자국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신흥 경제국으로 흘러가면 신흥 경제국에 자산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3. 환율전쟁은 '제로섬 게임'이고 '인근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제로섬 게임

- ① 제로섬 게임(zero - sum game)이란 국가들 이득의 합이 항상 0이 되는 게임을 말한다.
- ② 각 국가가 평가절하정책을 실시하면 평가절하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이득을 보지만 다른 국가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근본적으로 평가절하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닌 수요의 국가간 배분에 지나지 않는다.
- ④ 대공황이나 오일파동,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다수국가가 경기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일국의 평가절하는 상대국의 또다른 평가절하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세계교역을 줄이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2) 인근궁핍화 정책

1) 개념

- 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유도해 세계 경제 침체의 충격을 줄여보자는 통화 전략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근 궁핍화 정책'으로 불린다.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 ② 인근 궁핍화 정책은 트럼프에서 상대방 카드를 전부 빼앗아온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사용해 널리 알려졌다. 로빈슨은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으로 인한 인근 궁핍화 정책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했다.
- ③ 그는 인근궁핍화 정책이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며 통화가치 절하, 관세부과,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조치가 쓰인다고 설명했다.
- ④ 상대 국가를 믿지 못해 발생하는 인근 궁핍화 정책은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죄수의 딜레마와 흡사하다.

2) 게임이론으로 분석

(가) 가정

- ① 세계경제에 미국과 외국 두 국가만 존재하고 이 두 국가들은 오직 평가절하정책과 무대책 두 가지만 취할 수 있다고 하자.
- ② 각 정부는 다른 국가의 정책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평가절하정책이 유리하며 이를 택한다.
- ③ 두 정부가 모두 무대책을 취할 때 두 국가의 후생이 증가한다.

미국 / 외국	평가절하정책	무대책
평가절하정책	(-5, -5)	(20, -10)
무대책	(-10, 20)	(10, 10)

(나) 비협조의 경우

- ① 내쉬균형은 양국 모두 평가절하 정책을 실시하는 (-5, -5)에서 이루어진다.
- ② 자신들의 최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동했지만 두 국가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3) 협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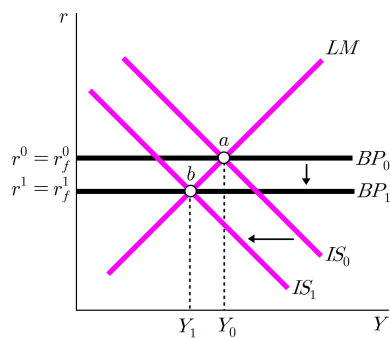
- ① 서로 상대의 무역정책에 대해 합의하고 최대한 협조, 자유무역을 할 경우 이러한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최적점인 (10, 10)으로 갈 수 있다.
- ② 즉, 협조게임이 비협조게임보다 우월하다.

3) IS - LM - BP 모형으로 분석

(가) 경제회복의 원인

- ① 외국 정부의 팽창적 금융정책에 따른 해외투자, 소비증가에 따른 원인으로 해외경제가 활성화된다.
- ② 팽창적 금융정책의 금리인하로 인한 순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나) 한국경제에의 영향



- ① 해외의 팽창적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하락함으로 국내로 자본이 유입된다.
- ② 자본의 유입은 환율을 하락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 ③ 따라서 BP곡선이 하방이동하고 IS곡선이 좌측이동하여 한국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다) 소결

- ① 자본의 완전이동은 일국경제의 국제경제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킨다.
- ② 따라서 국가간 경제정책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401페이지

주제 21. 4차 산업혁명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다.

1.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0점)
2.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파급효과를 논하시오. (40점)
3.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회요인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해 설>

1. 4차 산업혁명이란?

(1) 등장배경

- ①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② 2016년 1월 개최한 제46회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각국 정상들의 토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논의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구조의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개념

- 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 및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③ 증기기관 발명(1차), 대량생산과 자동화(2차), 정보기술과 산업의 결합(3차)에 이어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 ④ 미국에서는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라고 지칭한다.

(3) 기존 산업혁명

1) 제1차 (1760-1840)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 이끔

2) 제2차 (19세기말-20세기초)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

3) 제3차(1960년대 시작)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 인터넷이 발달을 주도.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함

			
제 1차 산업혁명	제 2차 산업혁명	제 3차 산업혁명	제 4차 산업혁명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5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IoT/CPS/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공장에 전력이 보급 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생산보급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 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그래픽=송유미 미술가자〉

(4) 특징

- ①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위치하면서도, 기존 산업혁명들과 차별화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② 기존의 1~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 자동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강화해온 과정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의 두뇌를 대체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 ③ 혁신의 속도 뿐 아니라 그 규모수익 또한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규모수익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 ④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대규모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5) 장애요인

- 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재고해볼 필요성이 큰 데 반해,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리더십의 수준과 현재 진행 중인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낮다.
- ② 그 결과 국가적, 세계적으로 혁신의 전파를 관리하고 혼란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계가 부족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부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2.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파급효과

(1) 파급효과

1) 제조업 혁신, 만인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회

- ① 산업구조 지능화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응용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3D프린터와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사업화도 용이해질 수 있다.
- ③ 이에 따라 맞춤형 소량생산이 즉시 가능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혁신제품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소비자가 제품개발, 유통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거듭남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직접 만드는 “1인제조기업”의 출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 공유경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말한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온디맨드

각종 서비스와 재화가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고,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수요자가 갖는 것이 특징이다.

2) 일자리 감소에 따른 양극화 심화 우려

- ①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발달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일부 전문 기술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② 특히 안정적이며, 고임금 직종으로 꼽히는 금융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금융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은행 창구직원 등 금융업 근로자의 수요가 예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③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출 될 수 있는 일자리는 210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치상으로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동자들 간에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 핀테크(Fin Tech)

(1) 개념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클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2) 핀테크 관련 사례

1) 클라우드 펀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소셜 펀딩'이라고도 한다.

2) 인터넷 전문은행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소규모 조직만 가지고 지점 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인터넷은행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등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주)브이뱅크컨설팅이 '브이뱅크'라는 인터넷은행 설립하려 했으나, 금융실명제법과 자금 확보 문제로 무산되었다.

3)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신원불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일종의 '사이버 머니(cyber money)'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3) 경제

- ① 지난 10년간, 전 세계 생산성은 기술의 기하급수적 진보와 혁신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정체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자동화와 컴퓨터의 연산력의 성장에 따라 잠정적으로 변호사, 재무분석가, 의사, 기자, 회계사, 보험판매자나 서서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소위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계층의 단순 반복 업무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이상 저렴한 노력적인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 세계 제조업이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4) 기업

- ① 제4차 산업혁명은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이 결합된,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지향하는 거침없는 전환이므로 모든 기업이 자사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기존 전략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다. 결국 지속적인 혁신 도모만이 기업 생존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② 디지털화 추세는 현재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높은 투명성의 의미는 공급망에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고, 소비자 역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성능에 대해 더 많은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결국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될 것이다.
- ③ 전통적인 칸막이(Silo) 문화와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기업과 고객 사이 공급체인에 존재하던 중개자가 제거되면서 기업의 운영 모델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로봇과 자동화, 물리학/디지털/생물학의 융합 등에 힘입어 다차원적 결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될 것이다.

5) 국가와 세계

- ① 시민사회의 힘이 커지고 인구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통치는 더 어려워지고 정부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정치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과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배움과 적응을 위한 정책 실행

힘을 집행해야 한다.

- ②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재화와 서비스 생산으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 자동화에 의해 경쟁 우위가 갑작스럽게 약화될 수 있다.

6) 사회

- 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과 시장은 소수의 '스타'들에게 지나치게 큰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②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숙련 노동력이나 평범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이다.

7) 개인

- ① 인터넷과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이다.
 ② 인터넷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며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 감시 도구로 탈바꿈 할 수 있다.

(2) 대응책

1) 정부

- ① 노동자 재교육, 신산업 위주의 직업훈련 개편, 첨단 기술자격증 신설 등 일자리 감소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② 또한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규제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기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 R&D 투자, 기술협력 등이 요구되며,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 등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에 대해 포괄적 시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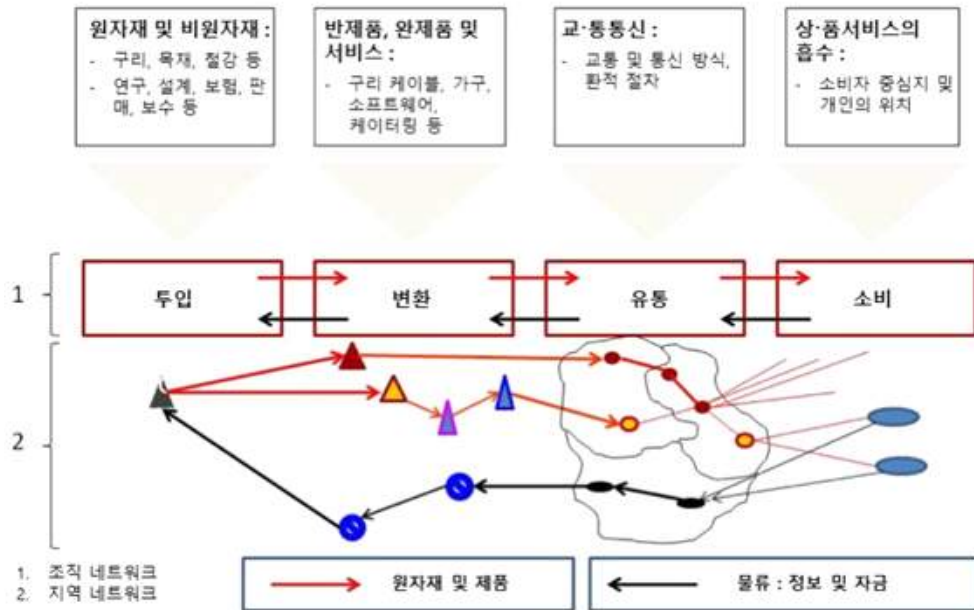
3) 개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숙지하고, 향후 유망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적성 학습을 통해 미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3.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회요인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1)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개념

- ① 가치사슬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상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유통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Chain)이란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다수기업들에 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이 분배되어져 있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
 ② 즉,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

- ①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가 가속되면 수출입액이 각 국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 ② 즉, 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은 국외에서 생산된 많은 중간재들을 국내로 들여와 마지막 부가가치를 포함시킨 후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의 총량과 국내의 GDP에 기여하는 국내 부가가치 활동과의 격차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특징

- ① 기업들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해 적정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사슬의 글로벌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②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세계 곳곳에서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기업이 반드시 특정 제품의 제조 전 단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게 된다.
- ③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변화

- ①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계무역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중국의 부가가치 수출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큼
- ② 중국은 제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소재·부품의 국산화 노력 등 산업기반 강화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 ③ 중국은 기존의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사슬 참여에서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디자인, 구매 단계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 ④ 특히,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기지 건설,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4) 기회요인

1) 신규시장 창출

- ① 고도 기술제품 생산과 R&D, 디자인, 유통 등 가치사슬의 상위 부분에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 ② 이를 위해서 글로벌가치사슬에서 R&D, 디자인 등 전방(upstream)분야의 핵심역량인 차별화된 기술력과 창의성과 함께 마케팅, 브랜드 등 후방(downstream)분야의 핵심역량인 맞춤형 현지화, 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 실행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
 - ③ 고부가가치 단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그치지 않고 'Korean Made*'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 원산지 개념 뿐 아니라 한국의 기술, 문화적 감성, 전통과 한국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을 의미

2) 제조업의 스마트(smart)화

- ①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헬스케어 등 수익성 높은 스마트 지식기반 산업이 수출유망산업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 ② 해당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시너지(Synergy)

- ① 제품에 입혀진 서비스는 유지·보수·관리 등 토털 솔루션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락인효과(Lock-in effect)로 수요자는 기존 제품·서비스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
- ② 제조업 기능이 '생산 자체'에서 '디자인, R&D, 비즈니스모델, 조직역량' 등 글로벌가치사슬상 고부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 ③ 제조업체는 생산공정에 ICT를 활용하거나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제품에 기반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1. 중국 - 중국제조 2025

중국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란 산업구조 고도화 3단계 전략을 세워 제조업과 IT를 융합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단계	내용
1단계(2015~2025)	제조강국 반열 진입, 2020년까지 기본적인 공업화 실현, 2025년까지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2단계(2025~2035)	세계 제조업 강국 중간수준을 확립
3단계(2035~2049)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로서의 자리매김

2. 한국 - 제조업 혁신 3.0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진화전략으로 수립된 정부의 과제이다.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독일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중심으로 발전하던 1,2차 산업을 지나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중심이 제조업혁신이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증진 및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로 인한 생산성 증진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정부의 지원하에 민관이 주를 이루어 이끌어 나가는 반면,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은 정부 및 대기업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3. 독일 - 하이테크 전략 2020

2006년 정부,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첨단기술전략을 2009년에 수정·보완한 국가 과학기술육성 전략이다.

하이테크 전략 2020은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하여 산업 경제 프로세스 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미래 서비스 및 산업 요구사항에 적시 대처, 미래 인터넷에서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및 원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장,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화 및 서비스화 지원,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기회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471페이지

주제 26. 스태그플레이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을 쓰시오. (10점)
2.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논하시오. (20점)
3.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책을 논하시오. (20점)

<해 설>

1.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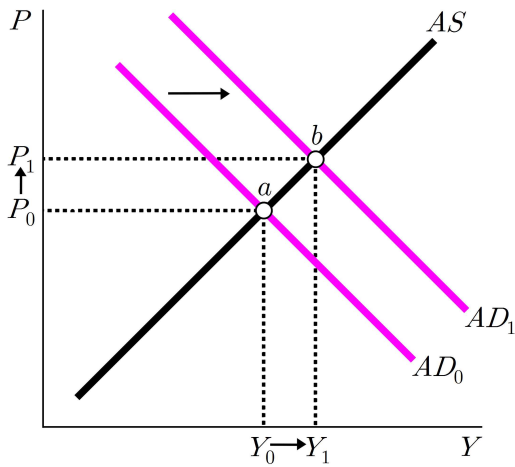
- 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 ②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 침체를 뜻하는 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즉,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상승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많이 증가하게 된다.
- ③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즉 총공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석유 파동 당시 높아진 석유와 원자재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 경제고통지수 (economic misery index)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다.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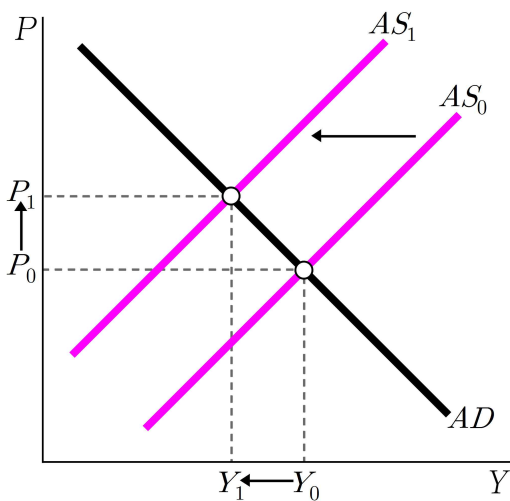
2.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논하시오.

- (1)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 - 수요견인 (demand-pull) 인플레이션



- 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란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통화량증가 또는 투자지출이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 ③ 총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면 ($AD_0 \rightarrow AD_1$)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 스태그플레이션 - 비용인상 (cost-push) 인플레이션



- 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총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임금인상,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유가상승 등이 총공급을 감소시킨다.
- ③ 총공급곡선이 좌측이동하면 ($AS_0 \rightarrow AS_1$)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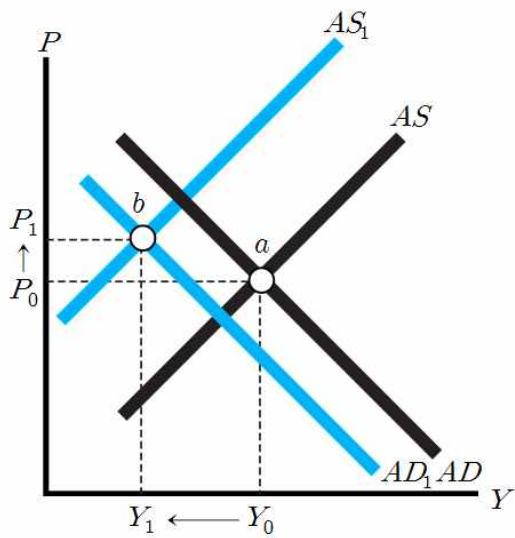
(3) 현상황

1) 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 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2016년 대비 61.9% 상승하였고 2016년 10월 태풍 이후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했던 당근, 무, 배추 가격이 각각 125.3%, 113%, 78.8% 급등했다.
- ② 또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류 가격도 1년 전보다 8.4%나 올랐다.
- ③ 따라서 총공급곡선이 좌측이동하였다.

2) 총수요곡선의 좌측이동

- ① 실질소득 감소, 역자산효과,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 ② 불확실성의 증가는 투자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 ③ 전세계적은 보호무역정책의 기조는 순수출 감소를 유발한다.
- ④ 따라서 총수요곡선이 좌측이동하였다.

3) 소결

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폭이 총수요곡선보다 크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

(1) 가처분소득(Y_d)

- ①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 ②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한다.

(2) 자산효과

- ①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의 명목가치(W)는 다음과 같다.

$$W = K + M + B$$

(K : 자본량의 측정가치, M :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의 명목가치, B : 채권의 명목가치)

- ② 자산의 명목가치가 커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자산의 명목가치가 작아지면 소비가 감소한다.

(3) 실질부의 효과

- ① P 를 물가수준이라고 하면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의 실질가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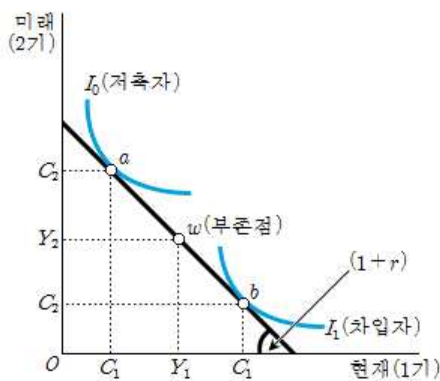
$$\frac{W}{P} = \frac{K}{P} + \frac{M}{P} + \frac{B}{P} = k + m + \frac{b}{rP}$$

(r : 이자율, b : 보유하고 있는 정부채권의 매수)

- ② k 는 자본량의 실질가치이고, $\frac{b}{rP}$ 는 보유채권의 실질가치이다.
- ③ 자산의 명목가치 또는 물가수준, 이자율 등이 변하면 실질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며 소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4) 이자율효과

- ①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 따르면 소비는 이자율의 함수이다.



- ② 이자율이 변하면 가격효과(대체효과 +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 ③ 대체효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할 때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므로 현재소비가 증가한다.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감소 → 현재소비 증가)
- ④ 소득효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하락할 때 실질소득이 변한다.
만약 채무자라면 대출이자 하락은 실질소득의 증가로 현재소비 증가를 가져온다.
(소득효과 : 채무자의 대출이자하락으로 실질소득 증가 → 현재소비 증가)
- ⑤ 따라서 이자율의 하락으로 현재소비는 증가한다.

2.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 이자율

-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하락은 대출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투자증가를 가져온다.
- ② 고전학파에 따르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변화는 투자의 증감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
- ③ 케인즈학파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강조하므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다. 따라서 이자율변화는 투자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하다.

(2) 토빈의 q이론

- ① 토빈의 q란 기업의 가치를 실물자본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의 변동은 토빈의 q값에 영향을 준다.
- ②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 토빈의 q값이 증가하고 이는 투자증대를 가져온다.

(3) 딕싯(A. Dixit)의 투자옵션모형

- ① 딕싯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옵션(option)으로 보았다.
- ② 옵션을 선택하면 투자를 실행하여 자금보유가 감소하므로 추후 경기침체로 투자를 줄이기는 어렵게 된다.
- ③ 따라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옵션의 가치가 커지고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3.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G - T = \Delta M + \Delta B$$

(G : 정부지출, T : 조세수입, ΔM : 통화량 증가, ΔB : 국공채 발행)

- ① 정부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 ② 조세 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는 방법,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 ③ 조세 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
- ④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에 인수시키면 민간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가능하지만 순수한 재정정책이 아니고 통화 증가를 가져오는 통화정책이 같이 시행되게 된다.
- 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매각하는 방법의 경우 채권 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의 투자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 ⑥ 이 밖에 해외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4.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 ① 실질환율($\frac{ep_f}{p}$)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실질환율이 감소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 ② 외국소득(Y_f)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소득이 감소하면 수출이 감소한다.

(2) 수입

- ① 실질환율($\frac{ep_f}{p}$)이 상승하면 수입이 감소하고 실질환율이 감소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 ② 국내소득(Y)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소득이 감소하면 수입이 감소한다.

3.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책을 논하시오

(1) 인플레이션의 대책

	내용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학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p>①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p> <p>②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도한 통화 공급 때문이므로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면 인플레이션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
케인즈 학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p>① 긴축적인 재정정책에 의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 <p>② 산출량수준이 매우 낮다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p> <p>③ 그러나 완전고용산출량에 가까와져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억제가 필요하다.</p>

(2)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책 - 소득정책

- ① 소득정책(income policy)이란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이윤 및 임금 인상을 억제시킴으로 총 공급곡선을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 ② 임금가이드라인, 임금 - 물가통제 등이 소득정책의 사례이다.

(3) 현상황

- ① 소득정책과 더불어 내수활성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② 따라서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 모두 우측이동할 수 있다.